

제4회 러시아·유라시아 영화제

Russia Eurasia
Film & Culture Readings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ANYANG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일시 2013년 5월 31일~6월 2일(금·토·일)
장소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주최 한양대학교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

집으로...
ДОМОЙ



NRF 한국연구재단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 서울아트시네마

초대의 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저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은 오는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낙원동에 위치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다모이(Домой, 집으로)"라는 주제로 <제4회 러시아·유라시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본 연구사업단이 2010년 5월, 영화를 통해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화를 널리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Russia·Eurasia Film & Culture Readings의 네 번째 기획으로, "현대 러시아 영화와 국가 : 순음과 저항사이"(제1회), "전쟁, 휴머니즘을 말하다"(제2회), "사랑, по-русски"(제3회)에 이어, 특별히 "가족"을 소재로 제작된 러시아의 대표 영화들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고유한 삶의 양식과 궤적을 되짚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소비에트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 이야기를 다룬 러시아 영화의 걸작들, <어머니>, <콥테벨>, <가족>, <정글>, <다섯 명의 신부들>, <아버지>, <이탈리안> 등 총 7편의 영화가 차례로 상영됩니다. 이번에 선별된 작품들은 모두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영화들로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학생들과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번역, 제작, 감수한 한글 자막과 함께 제공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은 인간의 삶의 근원적 초소이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세상살이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 함께 여여가는 가정생활에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의 삶을 실감 있게 담아낸 걸작들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사고와 행위의 직박한 실체를, 그들의 가치와 문화의 역동적 변모를 함께 가능하고 공유하는 길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김구호

[2013년 5월 31일 Fri, 19:00]

2. Коктебель (콥테벨)



감독	알렉세이 포포그렙스키,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출연	글렘 푸스케팔리코, 블라디미르 루체네프 외
장르	드라마
제작	2003년, 러시아
상영시간	108분
수상경력	• 2003년 제25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감독상) • 2003년 제 38회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필름 모리스상(감독상) • 2004년 소피아 국제영화제 그랑프리(감독상)

SYNOPSIS

항구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직장을 잃고 모스크바에서 삶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자 11살배기 아들과 타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흑해 연안 도시 콥테벨을 향해 먼 여행길에 오른다. 두 사람은 낮에는 물레 기차에 무임승차를 하고 밤에는 기차길 아래 굴 같은 곳에 침을 청하며 여행을 지속한다. 그런 어느 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준 가정에서 아들은 연상의 소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 아버지에게 이 여행은 자신감과 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도인 반면 아들의 목표는 버림에 날리다니는 활강기가 있는 바닷가 마을 콥테벨에 가는 것이다. 와중에 아버지는 새 보금자리와 호감을 가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 곳에 정착하기를 바라지만, 아들은 자신의 목적지에 달기 위해 도주를 감행하는데...

[2013년 6월 1일 Sat, 16:30]

4. Джунгли (정글)



감독	알렉산드르 보이틴스키
출연	세르게이 스베틀라코프, 베라 브레즈네바, 마리나 듀제바, 알렉산드르 폴로프체프 외
장르	코미디
제작	2012년, 러시아
상영시간	80분

SYNOPSIS

유명연속극이 되는 것이 꿈인 세르게이와 앙공극대대표가 되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이 꿈인 마리나는 첫눈에 반해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덧 결혼 3년차, 이들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일족에게 가까운 세르게이는 단 한 번도 아내와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고 휴가를 떠나 본 적도 없다. 급기야 3주년 결혼기념일에도 세르게이는 여전히 일에 매달려 있었다. 특단의 조치로 마리아가 세르게이를 떠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세르게이는 상황을 무마할 작정으로 이국적인 섬으로 여행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부부는 처음으로 낭만적인 섬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2013년 6월 2일 Sun, 14:00]

6. Папа (아버지)



감독	블라디미르 마쉬코프
출연	블라디미르 마쉬코프, 이고르 베로예프, 안드레이 로젠덴트, 크세니아 라브로바-글린카 외
장르	드라마
제작	2004년, 러시아
상영시간	94분
수상경력	• 2005년 러시아 국내영화제 예술감독상 수상 • 2004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

SYNOPSIS

1930년대, 돌진이라는 작은 마을에 음악적 재능을 지닌 아들과 그만 바라보며 사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에 뛰어난 아들이 대형 연주 홀에 서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조삼십대에 때로는 잔인하게 아들을 몰아붙인다. 아들은 아버지가 바라던 바대로 모스크바 음악대학으로 입학하여 우등생으로 성장한다. 아들이 대형 홀에서 연주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는 기대를 품고 아들을 찾아오지만, 아들은 냉담하기만 하다. 결국 아버지는 기대하던 감사의 인사 대신 모욕만 당한 채 상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흘러 음악가로 성공한 아들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고 마침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 상영 일정

상영일	상영시간	영화	감독
5월 31일 (금)	16:30~	<어머니>	데니스 예브스티그네예프
	19:00~	<콥테벨>	알렉세이 포포그렙스키,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6월 1일 (토)	14:00~	<가족>	니키타 미할코프
	16:30~	<정글>	알렉산드르 보이틴스키
	19:00~	<5명의 신부들>	카렌 오가네상
6월 2일 (일)	14:00~	<아버지>	블라디미르 마쉬코프
	16:30~	<이탈리안>	안드레이 크라브추크

• 디지털 상영, 한글자막, 무료상영

■ 상영 장소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02-2220-1494
www.eurasiahub.org



모바일 앱

[2013년 5월 31일 Fri, 16:30]

1. Мама (어머니)



감독	데니스 예브스티그네예프
출연	논나 모르듀코바, 블라디미르 마쉬코프, 알렉 멘스코프 외
장르	드라마
제작	1999년, 러시아
상영시간	99분
수상경력	• 1999년 러시아 영화예술 아카데미상 (니키) 최고음악상 수상 • 1999년 러시아 영화협회 주관 (키노티브) 영화제 음악상, 단채연기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SYNOPSIS

남편을 잃은 폴리나는 룬나, 콜라, 바사, 파사, 유라, 니키타 6명의 아들로 이루어진 "술거른 가족"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찾는 이들이 없어지자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비행기 납치사건을 벌인다. 이 사건으로 아들 니키타는 총에 맞아 죽고, 룬나는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등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15년 후 엄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각지로 흩어진 아들들 (룬드라의 난봉꾼인 콜라, 타지키스탄의 특공대원인 바사, 블라디보스토크의 웨이터인 파사, 우크라이나의 광부인 유라)를 모아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룬나를 구출하려 하는데...

[2013년 6월 1일 Sat, 14:00]

3. Родня (가족)



감독	니키타 미할코프
출연	논나 모르듀코바, 스베틀라나 크류치코바, 안드레이 페트로프 외
장르	드라마, 코미디
제작	1981년, 러시아
상영시간	92분

SYNOPSIS

시골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모스크바에 사는 딸집을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온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딸 나니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계나라는 정부까지 두고 있다. 어린 손녀 이리나도 미국 문화에 심취해 엄마의 말은 무시하며 제멋대로다. 마리아는 딸과 사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일을 그르쳐 상황만 더 악화된다. 바람이 나서 오래 전에 집을 나간 남편도 찾아가 보지만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원망하기 보다는 측은한 마음에서 마리아는 남편을 시골로 데려가 요양시키며 같이 살고자 하는데...

[2013년 6월 1일 Sat, 19:00]

5. Пять невест (다섯 명의 신부들)



감독	카렌 오가네상
출연	다닐 코즐로프스키, 엘리자베타 보야르스카야, 이르투루 스몰랴니노프, 스베틀라나 후드첸코바 외
장르	코미디
제작	2011년, 러시아
상영시간	104분
수상경력	• 2011년 러시아 비보르그 영화제 (유림의 창) 황금배 상(감독상)

SYNOPSIS

1945년 5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 비행조종사 5명은 곧 전쟁 영웅으로 금의환향하게 될 꿈에 부풀다. 하지만 베를린에 머물러 있겠다는 스탈린의 명령으로 발이 묶이게 된 이들은 늦은 귀국으로 결혼할 신부들을 못 만나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이들 중 료사가 하루간의 출장 명령을 받고 러시아로 가게 되자, 다른 친구들은 료사에게 자신들의 신부감을 찾아 기차 결혼식을 올리고 베를린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2013년 6월 2일 Sun, 16:30]

7. Итальянец (이탈리안)



감독	안드레이 크라브추크
출연	니콜라이 스피리도노프, 마리아 쿠즈네초바 외
장르	드라마
제작	2005년, 러시아
상영시간	97분
수상경력	• 2005년 베를린 영화제 국제영화제 수정공상 '어린이를 돕기 위한 독일 재단 최고의 장편 영화 부문' 그랑프리의 수상 • 2006년 러시아 황금독수리 영화제 '최고의 작품' 및 '최고의 작가' 부문 수상 • 2006년 (오스카) '최고의 해외 작품' 부문 러시아 후보 • 2006년 러시아 영화예술 아카데미상 (니키) 올해의 영화상 수상

SYNOPSIS

이탈리안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러시아 한 지방의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주인공 바나 스펠브를 만나게 된다. 바나는 이탈리아 부부의 마음에 들게 되고, 두 달 내로 데리러 오겠다는 말과 함께 그들은 돌아가고, 고아원의 아이들은 바나를 이탈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입양되어 떠난 친구 알료사 무힌의 친엄마가 아들을 데리러 고아원을 방문하지만, 찾지 못하고 기차역에서 자살을 한다. 고아원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회를 가진 바나이지만, 무힌의 엄마처럼 자신의 친엄마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친엄마를 찾아 떠난다. 바나를 찾기 위해 중개인 마담과 보즈 그리샤는 끊임없이 바나를 쫓아다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바나는 친엄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데...